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이후 카메라 시장

일본 브랜드가 몰려온다

컴팩트 카메라 시장 2위 목표로 돌진 저가 밀수품 대비책 마련이 관건

대일 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돼 온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99년 6월 30일로 막을 내리면서 일본과 제휴를 맺고 있는 각 카메라 회사들이 분주해졌다. 가장 가시적인 움직임은 마지막으로 해제되는 LSC 카메라 수입. 7월중에 다양한 모델을 선보일 계획 아래 유통망과 A/S망을 넓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일본 카메라 수입이 전면 허용된다. 98년 12월 31일부터 SLR 카메라(품목명:35mm 롤필름용의 사진기-렌즈를 통해 볼 수 있는 파인더를 갖춘 것)가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된 이래 마지막으로 99년 6월 30일부터 LSC 카메라(35mm 롤필름용의 사진기-기타의 것)도 해제되는 것이다.

컴팩트 카메라 본격 수입 유통망, A/S망 확충 주력

각사는 일본 브랜드의 컴팩트 카메라 수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카메라 사업을 해오고 있는 동원정밀(주), (주)아남인스트루먼트, SK 상사(주), 정안물산(주), 한국후지필름(주)과 새로 카메라 사업에 뛰어들 (주)우성포토교역이 7월 경부터 수입 제품을 내

놓을 계획으로 시장조사를 벌이며, 유통망 확충, A/S 강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동원정밀, 정안물산을 비롯한 몇몇 업체들은 수입 자유화를 매출 신장의 호기회로 보고 있다. 주력 목표는 '컴팩트 줌 카메라'이다.

이에 따라 텃밭을 지켜온 삼성항공(주)의 'KENOX'와 외국 수입 브랜드로 시장이 양분될 것으로 보이며, 경쟁의 핵심은 디자인과 기능(줌배율)이다. 수입사들은 단기간에 '케녹스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제각기 '2위를 차지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그 동안 컴팩트 카메라는 삼성항공의 독무대였다. 일본산 제품은 동남아, 중국 등에서 제작해 일본제 상표를 붙인 OEM 제품이나 밀수품에 의존돼 왔다. 한 조사에서는 98년 LSC에서 삼성항공의 카메라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65%까지 보기도 한다.

올림푸스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정안물산의 정지창 부장(국내영업부)은 '7월부터 다양한 컴팩트 줌 모델이 수입돼 판매가 10~15% 정도 신장될 것이며, 특히 140mm 이상 4배 줌 시장이 눈에 띄게 신장할 것이다'고 전망한다.

카메라를 직접 판매하는 상인들도 일제 컴팩트 카메라 수입 자유화를 계기로 판매가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무래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고가 SLR보다 컴팩트 카메라가 더 대중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카메라 수입사 관계자들은 앞으로 브랜드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고, 유통망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남의 박창희 과장(영업기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이후 카메라 시장

획)은 “특정 상품군은 저가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고, 경쟁에 의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또 전속유통 체제에서 혼합판매 유통으로 전환되고 저가격 지향, 고효용추구의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에 따라 대형양판점, 홈쇼핑,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매 확대 등 신유통망의 판매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업체들마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제품의 차별화, 유통망 확충,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저가 밀수품 대책 큰 고성 수입 자유화 이후 더 극성

한편 밀수제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동원정밀(주) 오성훈 대리(카메라 영업팀)는 ‘삼성을 제외한 외국 브랜드 사이에서는 오히려 밀수품과의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되는 카메라의 10% 정도가 밀수일 것’이라고 귀뿔한다.

99년 1월 SLR 수입선다변화 해제로 니콘, 캐논, 펜탁스, 미놀타의 다양한 제품이 선보인 이후 밀수가 더 성행해 유통 시장을 문란시키고 있다. 콤팩트 카메라도 지금까지 일

제 수입을 막아왔으니 당연히 밀수 제품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시작될 각 업체에서 광고전이 치열해짐에 따라, 부수 이익을 등에 업고 유입되는 밀수품이 더 많아질 것은 자명하다.

정안물산의 관계자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 할인점 등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올림푸스의 뮤 시리즈는 100% 밀수’라고 장담한다. 그 동안 중국에서 OEM으로 제작한 TRIP-31QD 등을 국내에 들여왔지만, 뮤 시리즈는 아직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밀수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 경쟁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수입 관세는 8%라지만 다른 세금까지 따지면 20%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사에서는 콤팩트 카메라 가운데서 인기 제품인 B모델의 소비자가격을 책정한다면 3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여기지만, 이미 유통되고 있는 가격은 19만원~20만원 선이다. 설사 제품이 포장돼 있지 않고, 보증서가 없어 밀수품임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값이 싼 제품에 손이 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사에서는 심각하게 밀수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일단 신제품 가격을 책정할 때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어

와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가격에 최대한 맞출 예정이다. 또 일본측과 밀접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어떤 경로로 제품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통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밀수품을 구입할 경우 사후에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SK의 이병성 대리(광학전자본부 케논팀)는 ‘포스터를 전국에 배포하고, 정품과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직적으로 홍보한 결과 구입한 제품이 정품이 맞는지 확인하는 고객의 전화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일본 카메라 메이커들이 직접 국내에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다고 우려한다.

전세계 시장에서 90% 이상을 현지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만 합작이나 대리점 형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면 국내 업체와의 파트너 관계를 끊고 현지 법인을 설립해 독자적인 영업망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일본측과 공고히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직판에 대한 의견은 일축하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이후 카메라 시장

각 브랜드별 마케팅 전략

유통망 다각화, A/S 강화

각 카메라 업체의 마케팅 전략을 모아 보았다. 7월 이후 수입될 콤팩트 카메라를 중심으로, 올 1월 이후 판매하고 있는 SLR 카메라도 소개한다. 디지털 카메라는 제외했다.

동원정밀(주), 펜탁스 ESPIO140M 등 9기종

동원정밀은 84년 일본의 아사히사와 카메라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들여와 PENTAX 카메라를 생산하기도 했으며, 수입선 다변화 제외 품목을 수입 판매해 왔다.

중형카메라는 2기종을 판매하다가, 수입선 다변화가 풀리면서 6기종(MZ-3, MZ-10, MZ-5N, MZ-50, MZ-M, 67 II)을 들여왔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콤팩트카메라는 ESPIO 738, ESPIO 115로 7월 이후 단종할 예정이다.

새로 들어오는 콤팩트 카메라는 9기종으로 ESPIO(738G, 838G, 928, 105WR, 115G, 125M, 140M, 160, 200). 주력 기종은 4배줌인 ESPIO140M.

동원정밀(주)의 마케팅 전략은 일단 '제품이 좋으면 많이

나갈 것'이라는 펜탁스 카메라에 대한 자신감이 기본이다.

김인택 이사는 '일반인용 콤팩트 카메라부터 프로용 SLR까지 풀 라인 업 된다는 것이 타사에 비해서 강점'이라고 강조한다.

"이번에 들어오는 제품 가운데 200mm Zoom까지 있다. 거의 5.5배 줌 정도로 콤팩트 줌 카메라에서는 처음일 것이다. 파노라마 기능 등 SLR카메라의 특징점을 가지고 있고, 레버를 좌우로 돌려 줌을 사용하는 등 간편하게 디자인됐다."

동원은 앞으로 AS 직영점을 늘릴 예정이다.(현재 광주, 부산, 서울, 성남 등에 직영 영업소 운영) 올 1월부터 전국 24군데에 직영점 계약을 맺었으며, SLR을 수입하면서 4,50군데로 확산된 대리점을 더 확장할 예정이다.

아남, 니콘 ZOOM 800 QD(4배줌) 등 5기종

(주)아남인스트루먼트는 92년 4월에 아남산업(주)(현 아남반도체) 광학사업본부로 시

작해서, 92년 6월에 일본 니콘사와 카메라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93년 1월부터 고급 기종 AF SLR 카메라(F801S)와 수동 SLR카메라(FM-2)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다. 94년 10월 광합사업본부가 아남산업(주)에서 아남정공(주)로 통합됐으며, 97년 9월에 (주)아남인스트루먼트 광학사업본부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아남은 고급 SLR 카메라 F-5, F-100을 99년 2월에, 중저가 SLR카메라 F-60D, FM-10, FE-10 3종을 4월에 들여왔다. 7월 이후로 콤팩트 카메라 ZOOM 400 QD(2배줌), ZOOM 600 QD(3배줌), ZOOM 800 QD(4배줌) 3종과 단초점 콤팩트 카메라 2종, 총 5종을 들여올 예정이다.

판매 목표는 '고객 제일주의 실현'. 주로 고급 기종이기 때문에 특히 주 사용층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첫째로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SLR 카메라는 최고급(F-5, F-100), 고급(F90X, F801S, FM-2), 중저가(F-601QD, F-60D, F50D,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이후 카메라 시장

FM-10, FE-10) 모델을 갖췄다. 콤팩트 카메라는 5모델을 더 출시해 총 7모델을 갖춘다.

둘째, 가격에서는 고품질 저가격 구조로 우위를 확보할 예정이다. IMF 이후 침체된 고급 SLR 카메라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이미 3월에 '가격과파'를 선언하고 'F801S'를 42.7% 인하해서 판매할 바 있다.

셋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유통채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지역별 핵심상권 내 총판점을 확대하고, 대형할인점 등 전문유통사와 판매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홈쇼핑, 통신판매, 인터넷 쇼핑몰 등도 공략하기로 했다.

넷째,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14곳의 서비스점을 올해 내에 28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리더층(신문사, 사진학과·디자인과·애니메이션학과)을 정기 순회하면서 무상으로 서비스하고, 국제 사진 순회전이나 공모전도 열 예정이다.

SK 상사(주), 캐논 PRIMA SUPER 28V 등 출시

SK 상사(주)는 LS 카메라(동남아 등에 있는 일본 캐논의 공장에서 생산)를 주로 취급해 오다,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된 올해부터 SLR을 판매하고 있다.

하반기에 들어올 신제품은 총 4기종이다. 이 가운데 콤팩트 카메라는 PRIMA SUPER 28V, PRIMA SUPER 135N(고급형), PRIMA SUPER 115N이고, SLR 카메라는 EOS88이다.

SK는 99년에 LS 카메라 시장에서 7%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2배줌 카메라인 PRIMA SUPER 28V에서 승부를 걸 예정이며 타기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라며 자신한다. 한편 고급 시장을 겨냥해 PRIMA SUPER 135N(3.5배줌)에도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이병성(광학전자본부 캐논팀) 대리는 "강력한 고객 만족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올 1월 SLR 카메라를 들여 온 후 업계 최초로 무상 서비스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고객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직접 찾아다니며 관리에 나선 것이다. 콤팩트 카메라 역시 이에 기반해서 철저한 고객 관리를 구현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판매(사이버 스토어 자체 구축 계획 중), SK 자체 통신판매망인 DTtoD(디투디)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찾아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CATV의 홈쇼핑과 연계한 판매도 고려 중이다. 또 6대 광역시에 대규모 안테나 샵(지역적 기반을 이용해서 각종 종보를 취합하

고 이를 기반으로 유통망 확대)을 조성해 판매망을 뚫어갈 예정이다.

한편 9월 중에 대학로에 150여 평 규모로 문을 열 예정인 '갤러리' 운영을 통해서 폭넓은 고객층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시회, 동호회 모임뿐 아니라 직접 판매, A/S 장소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시킨다는 생각이다.

(주)우성포토교역, 코니카 Z-UP 140 SUPER 등

(주)우성포토교역은 카메라 쪽에서는 후발주자인 셈이다. (주)우성필름의 기계사업부로부터 출발해 94년 1월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으며, 그간 이태리 폴리 일렉트로니카의 크롭핑 비디오랩, 미국 등의 첨단 기자재와 일본 코니카의 미니랩 장비를 국내에 보급해 왔다.

처음 시작하는 카메라 판매는 8월 정도 들어갈 예정이며 콤팩트, 디지털, APS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신제품은 일본 코니카사의 U-mini(외장에 색이 들어간 콤팩트 카메라), 콤팩트 카메라 U-mini AF와 Z-up 시리즈(Z-up 140, Z-up 120, Z-up 110, Z-up 70, Z-up 60), HEXAR(복고적 아날로그 분위기), Q-M100V(100만 화소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이후 카메라 시장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 REVIO(APS)이다. 99년 초에 일본 코니카사와 독점 계약을 맺었으며, 현재 시장 크기와 유통 과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아무래도 처음이니만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광고를 하기보다 주로 카메라 전문 도매상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일 전망이다. 판매 초기에는 1:1 맞교환도 고려하고 있으며, 호응이 좋은 제품 중 한두 제품은 통신판매도 병행할 예정이다. 가격은 일단 저가로 나갈 것이다.”

우성포토교역 영업부 송진섭 차장의 설명이다. 송 차장은 앞으로 A/S 요원 2명을 더 보강해서 상주시키고, 신제품 시판 전에 일본 현지 교육을 마칠 예정이다.

정안물산(주), 올림푸스 인기 제품 뮤 시리즈 도입

정안물산(주)은 다년간 카세트, 라디오 등의 소가전제품을 수입판매해 왔으며, 앞으로 양판점 형태의 유통을 예상하고 있다.(현재 190여 개 대리점 운영). 96년도에 현대전자카 올림푸스 카메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을 인계했으며, 작년에 올림푸스 코리아에서 정안물산으로 이름을 바꿨다.

TRIP-31QD, TRIP-300QD,

TRIP XB-3, OM-2000 등 현재 7기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뮤 시리즈(M-II, M-II Zoom VF, M-115 VF, M-70DL, M-W80, M-140, M-105DL)와, OZ-80S, OZ-130 등까지 10모델을 더 들여온다. 이 가운데 M-II Zoom VF는 세계 최초로 노광을 확인하는 기능(촬영 확인 기능)이 있다.

정안물산 국내영업부 정지창 부장은 ‘국내에서는 삼성 케녹스와 디자인이 심플하고 가격이 싼 올림푸스의 뮤시리즈가 가장 크게 경쟁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비춘다.

정안물산의 마케팅 전략의 첫째 목표는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 샵(대형점), 대형 D/M 업체, CATV, 대형 할인 양판점(김스 클럽, 마크로 등) 다각도로 판매 채널을 넓혀간다는 전략이다.

본사가 직접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은 지역 총판점을 운영해서 지역상권을 커버하고, 전국에 A/S 지점점을 구축해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국후지필름(주), DL-SUPER MINI ZOOM

지금까지 프로용(GX 680III, GX 617, GW 670 III, GW 690 III, GA645)과 24mm카메라(FOTONEX4000, FOTONEX 400MRC, FOTONEX300)를

판매해 왔다.

7월 이후부터 선보일 컴팩트 카메라는 모두 8종류로, 우선 1차로 DL-SUPER MINI ZOOM, DL-320 ZOOM, CLEAR SHOT 50AF/10AUTO 4기종을 내 놓는다. 이후 일본 시장에서 라인업 되는 대로 계속 신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DL-290SZOOM, DL-100 등)

주력 제품은 DL-SUPER MINI ZOOM으로 세련된 디자인에 크기가 작고 가벼우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 2배 줌 컴팩트 카메라이다. 자동으로 노출을 보정해 환경의 밝기에 따라서 빛이 조절된다. 오토포커스는 기본이고 매뉴얼 포커스로도 찍을 수 있으며, 카메라 기능을 버튼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멀티 오퍼레이션 버튼을 채택한 것이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동카메라들과 차별되는 큰 특징이다. 클로즈업 촬영기능도 있다.

정종문(정보영상팀) 계장은 시장 점유 목표는 5%라고 말한다. ‘후지필름은 사진감광재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컴팩트 카메라 판매는 주력이 아니고 한 제품을 추가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설명이다.

기존의 유통망인 후지칼라프라자(미니현상소), 필름대리점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A/S는 본사에 있는 A/S망 외에 7월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이후 카메라 시장

부터 12개 정도 서비스망을 더 늘릴 예정이고, 전문 판매대리점도 3~4군데 물색 중이다.

**(주)아그파코리아,
컴팩트 카메라 사업 시작**

한편 일본 제품은 아니지만 아그파도 컴팩트카메라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다. 지금부터 일회용 카메라 사업만 해오다가 이번 수입선 다변화 해제를 기회로 컴팩트 카메라도 판매하기로 했다.

현재 AF, FF(28mm 렌즈) 2제품(단초점) 샘플을 들여 왔으며 시장 조사를 하고 있다. 아직 선보일 제품이나 가격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삼성항공(주),
'제품으로 승부 건다'**

삼성항공(주) 유무성 대표는 그동안 '35mm 컴팩트 카메라와 줌 카메라 분야에서 기술과 국내 시장 지배력이 강하고, 애프터서비스망과 유통망은 일본업체가 쉽게 따라 올 수 없는 최대 강점'이라며, 시장 개방 이후의 판매에서도 자신감을 보여왔다. 그 동안 밀수품과의 경쟁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더라도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삼성측은 일본 제

품이 들어와서 벌이는 광고 판촉진을 통해 침체에 빠져 있던 국내 카메라 시장이 활기를 얻을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은 현재 35mm카메라 생산이나 개발을 유보한 상태이며, 개발투자비용이 다 빠진 기종이기 때문에 덤핑으로 국내에 공급할 경우 심각한 가격 경쟁에 부닥치게 되리라는 것이다.

한편 삼성항공(주)은 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해서 올해에만 13개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해외시장에만 내 놓았던 모델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중점 판매 제품은 컴팩트 줌 카메라.

이 가운데서도 KENOX 140IP와 KENOX 140IQS(보급형)에 주력한다.

앞으로 몰려드는 일제 컴팩트 카메라에 대한 대책으로 보상판매 등 AS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 고객 사은 행사 차원에서 7월 초에 ARS를 이용한 '밀레니엄 대축제'를 열고, 상품으로 해외 여행 티켓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고객 데이터 베이스를 확대하려는 일환이기도 한다.

삼성항공이 신제품 발표회에서 선언한 '전국 어디에서나 원데이 서비스제 실시, 품질보증을 2년으로 연장' 한다는 방침도 수입 브랜드에 대한 대책이다.

앞으로 인터넷과 할인점도 구축한다.

삼성항공은 79년 일본 미놀타(MINOLTA)사와 카메라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카메라 생산을 시작했으며, 1996년에 고유 브랜드 케녹스(KENOX)를 출시했다.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가져주려제품인 줌카메라는 1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2배줌 카메라 판매 부문에서 선두권에 진입했으며, 영국,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유럽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영국시장은 수요가 가장 많은 35mm 줌 카메라 부문에서 98년에 15.9% 시장점유율을 기록, 올림푸스(21.1%), 펜탁스(20.9%), 캐논(18.9%)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카메라 수출은 98년에 2억 달러, 99년에 2억 5000만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체 매출은 98년 3000억원에서 올해 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이후 카메라 시장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질 '수입선 다변화'
무한경쟁 도래, 강한 자만 생존한다

78년 도입된 수입선 다변화 제도는 수입초과액이 심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 중 수입선 전환이 가능한 품목을 다른 나라로 바꾸는 제도. 실체는 경제 개발 초기 무역역조가 극심한 일본을 대상으로 전자, 자동차, 기계 중심으로 운영한 보호무역정책.

세계무역기구(WTO)와 96년 6월부터 9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97년 말 국제통화기금

(IMF)의 국제금융제공을 조건으로 99년 6월말로 앞당김.

복사기, 카메라는 1988년부터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운영돼 오다 PPC 복사기, SLR 카메라는 98년 12월 말 해제됐고, LSC 카메라는 99년 6월 말부터 해제.

무역적자 확대방지에 상당히 기여했지만 'WTO 협정과 OECD 규약에 저촉,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라는 부작용

도 제기됨.

LG 경제연구원은 앞으로 '국내 기업간 부품표준화와 공용화, 유통망과 A/S망 재구축' 등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펴나가야 한다고 충고. ('수입선다변화 해제의 영향 분석') 특히 일본기업들의 핵심부품 공급중단이나 핵심기술 이전 기피 등에 대비해서 기술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 기술도입선을 구미 기업으로 전환하고 부품업체에 대해서 기술 및 자금지원을 통해 영세부품 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

SLR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이후
4개월 만에 대일 의존도 7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6월 30일부터 해제되는 16개 품목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신규 현지 법인을 설치하거나 직판체제를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 대리점을 활용하면서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카메라의 경우 일본 시장과 유사하다고 보고 콤팩트 카메라의 수출에 큰 기대하지만 수입관세가 8%인 데다 고급 렌즈에 대한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부담이 된다는 애로 지적. 또 불법 반입된 제품이 많아 가

격 경쟁력에서 밀린다고 판단.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6월 2일에 조사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SLR 카메라(폭 35mm 이하의 롤 필름용의 것. 98년 12월 31일 수입선 다변화 해제)가 99년 1월부터 4월까지 4달 동안 수입된 양은 총 167만 5천불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에서 수입된 양은 123만 1천불. 전체 수입국 중에서

72.3% 차지하는 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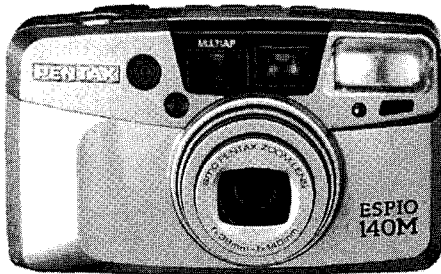
이와 같이 수입선 다변화가 해제된 품목이 단기간에 수입품 시장을 석권하는 현상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기업인이나 소비자의 맹목적이 다시피한 일제 선호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일제 선호에서 벗어나 가격과 품질 수준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수입선 다변화 해제 품목 수입비중 비교(광학 관련)> 단위: 천불, %

품 목	1998. 1~4			1999. 1~4		
	전체	대일	비중	전체	대일	비중
합계(20개 품목)	134,742	35,436	26.3	159,770	57,346	35.9
사진기(SLR 카메라)	376	35	9.3	1,675	1,211	72.3
캠코더	508	286	56.3	6,363	5,818	91.4
복사기	3,359	1,322	39.4	5,532	4,484	81.1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이후 카메라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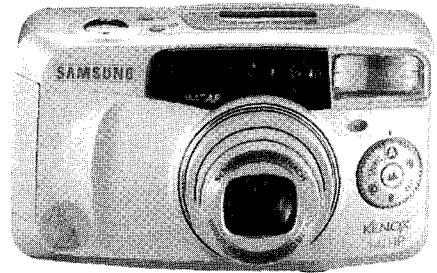
각사 주요제품 사양



▲ 동원정밀(주), ESPIO 140M

형태	35mm 완전자동 렌즈셔터 카메라(줌렌즈, 오토포커스, 자동노출, 자동플래시)
필름	35mmDX-coded film(24mm×36mm format)
렌즈	SMC 펜탁스 파워 줌 38mm~140mm f/4.8-f/12렌즈(6군 8매)
초점기구	위상매칭 수동 5포인트 오토포커스 시스템, 스폿포커스/풍경모드 이용가능
노출제어	프로그램자동노출제어(6분할 멀티패턴 측정)
셔터	프로그램 AE전자식 렌즈셔터, 셔터속도(1/400-2초), 벌브모드(1/2초-1분)
뷰파인더	표준/파노라마 전환가능, 실상줌 뷰파인더, 뷰파인더에리어 : 83% 디옵터 : -3~+1
외부LCD지시창	노출카운터, 전지소모경고, 플래시 ON/OFF, 저속셔터, 벌브, 풍경모드, 파노라마, 스폿AF, 셀프 타이머, 리모트 컨트롤, 적목경감
필름감기, 되감기	자동필름장착, 자동필름감기, 자동필름되감기, 도중되감기 가능
필름세팅	자동 필름 스피드 세팅(ISO25-3200)
셀프타이머	10초지연 전자식 셀프타이머
플래시	오토줌 플래시 내장, 자동충전모드, 플래시 ON/OFF모드, 충전시간(5초) 적목경감모드
리모트컨트롤	적외선 무선리모트컨트롤(3초 지연릴리스)

오토 파워 컷 오프	작동하지 않을 때 3분 후 자동파워 종료 (리모트컨트롤모드시 5분 후 컷오프)
날짜입력기능	5모드선택기능
전원	3V리튬전자 1개(CR123A형)
크기, 무게	113.5(W)×66.0(H)×50(D)mm, 235g(전지제외)
가격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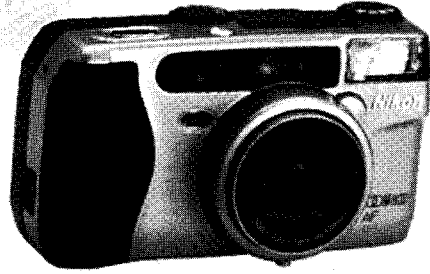


▲ 삼성항공(주), KENOX 140IP

형태	줌렌즈내장 전자동 35mm 렌즈셔터 카메라
사용필름	35mmDX필름 ISO 50~3200자동감지
화면크기	24×36mm(표준크기), 13×36mm(파노라마크기)
필름장전	자동장전, 뒷덮개 닫을시 카운터 1까지 자동이송
필름감기	자동감기식 1매 촬영, 연속촬영
필름되감기	자동 되감기식, 되감기 완료 후 자동정지, 도중 되감기 가능
촬영매수표시	촬영매수 자동표시(촬영기능 표시창에 표시)
렌즈	슈나이더 렌즈 38mm~140mm F4.6~12.2 7군 10매
셔터	AE프로그램식 전자셔터 (약 1/400~1/3초) 벌브(셔터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0.5~60초까지 셔터 개방)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이후 카메라 시장

셀프타이머	램프표시, 작동시간 약 10초 더블셀프타이머촬영, 2초 셀프타이머 촬영
파인더	• 실상식 줌 파인더 • 시야율 83% • 배율 0.41~1.32 • 파노라마 연동 • 자동초점 프레임 • 근거리 보정마크 내장 • 6군6매 구성
노출	프로그램식 자동노출
노출촬영범위	38mm(WIDE):EV5.9~EV17.6(ISO 100) 140mm(TELE):EV7.8~EV17.6(ISO 100)
역광조정	+1.5EV조정
플래시 충전시간	약6초(미충전시 촬영불가)
시간간격 촬영	설정가능시간 범위내에서 시간간격 촬영기능
인물중심 촬영	인물촬영시 상반신크기 정도로 적절하게 촬영
단계별줌 촬영	140mm~38mm까지 줌거리별로 자동 3컷~1컷촬영
창밖원경촬영	강제초점 고정 기능 WIDE:3.5m~∞ TELE:9.5m~∞
스냅 촬영	1.3m~6m내에서 스냅촬영 가능
연속촬영	셔터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연속해서 촬영(플래시 미발광)
촬영기능 통수	24매 필름 약 15통(50% 플래시 사용시, 당사 시험조건에 의함)
전지경고	전자준비 예고시 전지마크 켜짐(전지마크 깜박거림시 촬영불가)
전원	3V리튬전지(CR-123A)1개
크기	115×65×44mm
중량	230g(전지별도)
날짜, 캡션기능	① 년·월·일/일·시·분/날짜 표시 없음/월·일·년/일·월·년 ② 시계 카렌다 기능:2099년까지 윤년 자동변경 ③ 7가지 기념 문구 삽입기능
부속품	어깨끈, 카메라케이스, 리모콘
파노라마 촬영	가능(외부전환식)
리모콘 촬영	가능
가격	₩ 550,000



▲ (주)아남 인스트루먼트, ZOOM 800 Q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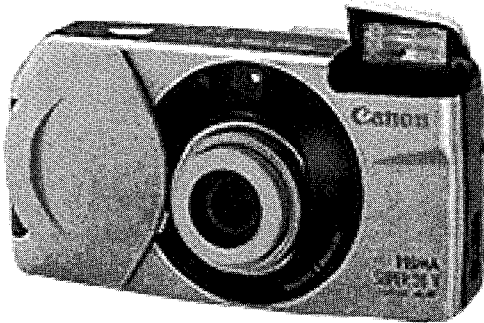
형식	35mm AF LS 카메라
사진규격	표준 24×36mm
렌즈	38~130mm/f4.5~9.5 3군 6매 (멀티레이저코팅)
셔터	프로그램 전자 셔터 셔터속도 2~1/330초
초점맞춤	적외선 액티브 AF시스템 설정범위 1m-∞
파인더	실상식 줌 파인더 배율 0.39배(38mm에서) 1.27배(130mm에서)
노출제어	전자제어 프로그램 AE(자동 백라이트 제어)
노출범위 (ISO 100)	EV 3.5~17(38mm에서) EV 5.8~19(130mm에서)
필름작동	Full Auto(중도되감기)
필름세팅	ISO 50~3200 자동세팅 non-DX-films 100에 세팅
필름매수 카운트	LCD판넬에 표시 Count-Down 방식
셀프타이머	작동시간 10초(리모콘)
플래시	GN.17(38mm)~21(130mm)
플래시 연동범위	1~5.3m(38mm에서) 1~3.2m(130mm에서) 재충전시간 약 4초
플래시모드	Auto.Cancel.Anytime.Slow 적목감소기능(Slow Sync)
전원	3V 리튬전지 2개

특별 기획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이후 카메라 시장

데이터기록	7-Dot 입력방식 년.월.일(5가지 입력방식) 24 hour 순환식 시간오차 ±90초/월
규격	128×72×52mm(WHD)
중량	295g(전지제외)
가격	미정(50만원대 추정)

중량	260g(건전지 별도)
가격	₩440,000



▲ SK상사(주), PRIMA SUPER 28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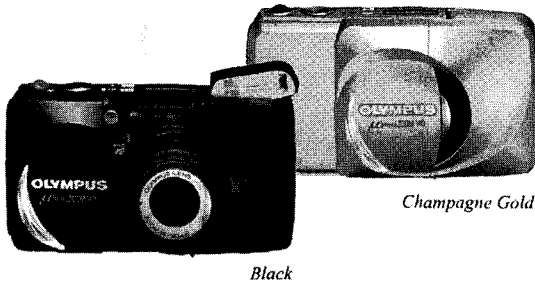
▲ (주)우성포토교역, Z-UP 140 Super

형식	2.5×Zoom Camera
사진 규격	35mm
렌즈	28-70mm f/5.6-7.8
셔터	전자식
초점맞춤	인공지능자동초점맞춤시스템
파인더	투명 LCD판넬
노출제어	완전자동
필름작동	자동
필름세팅	자동
셀프타이머	있음
플래시	자동 줌 플래시
플래시모드	저속동기모드
전원	3V 리튬 건전지
데이터기록	있음
규격(넓이×높이×두께)	123×64×43.8mm

형식	35mm ZOOM
렌즈	38mm F3.6~140mm F10.2
초점	AUTO-FOCUS
RANGE	0.8m~∞
서니스피드	3.2sec. - 1/280
필름작동/제어	AUTO
FILM SPEED	DX Auto Setting(ISC 25~3200)
전원	리튬 배터리 1EA (CR123A,DL123:3V)
셀프타이머	작동
플래시(/Mode)	AUTO, FLASH ON~OFF (/Red-Eye Reduction, Night-View Portrait, ETC)
색상	SILVER(1 COLOR)
무게(g)	290
규격(W×H×D/mm)	119.5×68×55
노출범위	+1.5F.V
Others	Remote Control(옵션)
가격	₩373,592

특별 기획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이후 카메라 시장



▲ 정안불산, M-Zoom 140

형식	4배 줌 완전자동카메라
셔터	38~140mm(F4~11)
촬영범위	(W) → 0.6m~∞ (T) → 0.9m~∞
플래시(/Mode)	Auto/Red - Eye Reducing/ Night Scene/Fill - In/Off Modes
규격	120×65.5×46mm
무게	255g(전지 별도)
가격	미정(일본 가 70,400¥)



▲ 한국후지필름(주), DL SUPER MIMI ZOOM

형식	AF 자동카메라
필름규격	35mm
렌즈	28mm~56mm(2배줌)
셔터	1/500sec
초점맞춤	AF
노출	-2stop~+2stop조정가능
필름세팅	AUTO
셀프타이머	○
플래시	AUTO
전지	CR123A
규격	116mm×63mm×34mm
중량	202g(배터리 제외)
가격	미정(20~30만원대)

정 기 구 독 안 내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광학세계' 지를 정기구독하고자 하는 분은 1년간 책자 우송료 1만2천원을 지불하시면(국민은행 084-01-0156-856, 예금주: 한국광학기기협회)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정기구독 기간중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본 협회(전화: (02)581-2321~2)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